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미혜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Mi-Hye Lim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85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 21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30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73점, 자아분화수준은 5점 만점에 3.07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학과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친구 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거주형태, 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친구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자아분화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능력($r=.614, p<.001$), 자아분화($r=.264, p<.001$)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F=58.171, p=.000$)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변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9%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185 nursing students in D and S Province and from November 15th to December 5th 2016.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 of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3.30(\pm 0.49)$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3.73(\pm 0.41)$ and self differentiation was $3.07(\pm 0.3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r=.614, p<.001$) and self differentiation($r=.264, p<.001$).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which explained 39%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programs that develo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 differentiation are necessary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adjustment.

Keywords : Adjustment, College,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Student, Self differenti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관여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제공자로서 병원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1], 최근

*Corresponding Author : Mi-Hye Lim(Joongbu Univ.)

Tel: +82-42-750-6260 email: 12veronica@joongbu.ac.kr

Received August 2, 2018

Revised (1st September 4, 2018, 2nd September 6, 2018)

Accepted September 7, 2018

Published September 30, 2018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부족이 중요한 보건의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늘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간호사 10만 명을 배출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도 2022년에 54.6%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으나[2] 최근 10년간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8,000명 증원되어 매년 1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12.4%로 그 중에서도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3.9%에 달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3], 신규간호사 이직은 남아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량 증가, 장기근속 인력 부족, 양질의 간호 제공의 어려움으로 다시 간호사 이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4],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이직을 낮출 수 있는 업무, 처우개선 및 특히 신규간호사 임상적응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2,3].

최근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나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는 전공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주변의 권유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고[5] 다른 전공과는 다르게 이론 및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하는 부담감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졸업 후에도 임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5].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병원이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임상실습하면서 간호대상자, 보호자 및 의료진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6],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근무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과중하고 위험한 업무, 휴가 활용의 어려움 보다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2], 실제 신규간호사들도 임상현장에서의 어려움으로 경력간호사들은 낮은 급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습득되는 것으로[7], 대학생 시기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므로[8]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도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경

제적 자립 및 인생관을 확립하는 시기로 타인과 융합하여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하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적인 자주성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이다[9]. 자아분화는 가족으로부터 친밀감과 분리감을 적절히 습득해가면서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켜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면서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적절히 유지해나가는 정서적인 성숙으로[10],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외부환경에 적응하며 긍정적이고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 수준이 요구된다[11].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기간이 길어지고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높은 자아분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외부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 부적응으로 대학생활적응이 어렵고 졸업 후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업무 부적응을 겪기도 한다 [9,12]. 실제 간호사들은 이직 시, 경력 간호사는 같은 지역으로 이직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신규간호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직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13], 신규간호사들이 졸업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주체적인 개체로 살아가야 하지만 집을 떠나 타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임상현장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과 가까운 곳이나 자신에게 친숙한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대학생활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미래에 영향을 주고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면 졸업 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임상현장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신규간호사들의 이직률도 낮출 수 있으므로[14],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 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감성지능[6,15,16,17]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과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의 적응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 2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하여,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에 동의한 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 공식에 따라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172명이 권고[18]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15부를 제외한 18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설명하고 설문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자율성에 의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내에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설문지 수거함에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Guernsey[19]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다.

2.3.2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불안정성에 직면해서도 비불안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Je[21]의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기능 7문항, 자아통합 6문항, 가족투사 6문항, 정서적 단절 6문항, 가족퇴행 11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22]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대인관계, 사회체험 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화 수준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이 84.3%, 남학생 15.7%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26.5%, 2학년 23.8%, 3학년 23.8%, 4학년 25.9%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43.8%, 없다 56.2%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42.2%, 취업이 잘되어서가 33.0%,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가 22.2%, 성격에 맞추어서가 자의에 의해서가 2.7%이었다. 전공

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65.4%, 보통 28.6%, 불만족 5.9%이었다. 친구 수는 5명 미만인 15.7%, 5-9명이 51.4%, 10명 이상이 33.0%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인관계능력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F=4.005, p=.020$), 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지원한 학생에 비해 높았다($F=2.932, p=.030$).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친구가 5명 미만인 학생에 비해 친구가 10명 이상인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았다($F=3.515, p=.032$).

자아분화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8.809, p<.001$).

Table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5)

Variable	Categories	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djustment of School Lif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9	15.7	3.78±0.51	.799	3.02±0.34	-.973	3.30±0.64	.125
	Female	156	84.3	3.72±0.40	(.426)	3.08±0.31	(.332)	3.29±0.46	(.901)
Academic grade	1st	29	17.5	3.66±0.44	1.010 (.390)	3.03±0.33	1.418 (.239)	3.18±0.43	1.766 (.155)
	2nd	59	35.5	3.76±0.44		3.15±0.29		3.37±0.51	
	3rd	53	31.9	3.79±0.36		3.06±0.33		3.26±0.52	
	4th	25	15.1	3.70±0.41		3.04±0.30		3.37±0.46	
Religion	No	81	43.8	3.71±0.45	-.357	3.07±0.31	.109	3.31±0.51	.448
	Yes	104	56.2	3.74±0.37	(.056)	3.07±0.33	(.913)	3.26±0.46	(.146)
Housing	live with parents ^a	27	14.6	3.87±0.45	4.005	3.03±0.34	.223 (.800)	3.46±0.56	1.445 (.238)
	self-boarding ^b	37	20.0	3.81±0.39	(.020)	3.06±0.33		3.26±0.49	
	Dormitory ^c	121	65.4	3.66±0.39	a>c	3.08±0.31		3.30±0.46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 ^a	78	42.2	3.83±0.45	2.932 (.030)	3.12±0.31	1.657 (.178)	3.48±0.50	6.870 (<.001)
	Job ^b	61	33.0	3.66±0.37		3.04±0.28		3.21±0.47	
	Other's opinion ^c	41	22.2	3.63±0.39		3.00±0.37		3.16±0.39	
	Grades(mark) ^d	5	2.7	3.70±0.32		3.12±0.39		3.22±0.42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a	11	5.9	3.45±0.32	6.726	2.86±0.42	8.809	2.81±0.36	17.121
	Moderate ^b	53	28.6	3.61±0.39	(.002)	2.96±0.30	(<.001)	3.09±0.41	(<.001)
	Satisfaction ^c	121	65.4	3.80±0.42	a<c	3.14±0.29	a<c	3.42±0.47	a,b<c
Friends	0-4 ^a	29	15.6	3.56±0.51	3.515	3.04±0.31	1.420 (.244)	3.03±0.53	6.576
	5-9 ^b	95	51.4	3.73±0.39	(.032)	3.04±0.32		3.29±0.47	(.002)
	10이상 ^c	61	33.0	3.80±0.38	a<c	3.12±0.31		3.42±0.44	a<b,c
Total		185	100	3.73±0.41		3.07±0.32		3.30±0.49	

Post-hoc comparison=Scheffé

대학생활적응은 전공을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타인의 권유에 의해 지원한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F=6.870, p<.001$), 전공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인 학생이 불만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17.121, p<.001$). 친구가 5명 미만인 학생에 비해 5명 이상인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았다($F=6.576, p=.002$)

3.3 대인관계 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3(\pm 0.41)$, 자아분화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07(\pm 0.32)$ 점,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0(\pm 0.49)$ 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85)

Variable	Mean±SD	Min	Max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3±0.41	3.0	5.0
Self Differentiation	3.07±0.32	2.1	3.7
Adjustment of School Life	3.30±0.49	2.0	5.0

3.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대인관계 및 자아분화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은 대인관계능력($r=.614, p<.001$), 자아분화($r=.264,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고, 대인관계능력은 자아분화($r=.250,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85)

Vari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Adjustment of School Life
	r(p)	r(p)	r(p)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Self Differentiation	.0250 (.001)	1	
Adjustment of School Life	.614 (<.001)	0.264 (<.001)	1

3.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 1.881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증에서도 공차한계가 0.938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67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이었으며 ($F=58.171, p<.000$) 이었으며 수정 계수 설명력은 39%이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of School Life (N=185)

Factor	B	S.E.	β	t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686	.070	.585	9.776	.000
Self Differentiation	.179	.091	.118	1.970	.050
Adj.R ² =.390 F= 58.171 (p<.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73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Lee[23]의 3.57점, Chung과 Kang[24]의 3.60점(5점 환산)보다 다소 높았는데 선행 연구의 대상자가 1학년이거나 본 연구보다 저학년의 비율이 높아,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다는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9,23].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친구가 5명 미만보다 10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았는데,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친밀감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함양되는 것으로, 사교성이 높은 성격이 그렇지 않은 성격의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았으며[23], 한국사회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로 가족의 범위 밖의 개인이나 집단보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고 우리라고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맺고 있어[25], 기숙사보다는 가족과 거주하는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분화 수준은 본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0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Nam[9]의 2.8점(5점 환산)과 Jo[26]의 2.88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자아분화 수준도 높았는데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삶을 준비하며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성찰하며 자아만족감이 높은 것[27]을 고려하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0점으로 Han[28]의 3.27점, Kim과 Jang[29]의 3.09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간호학과를 적성이 맞아서 지원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들이 불만족한 학생에 비해 높았고, 친구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5명 미만보다 높았는데, 선행연구에서도[16]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활동을 통해 얻어진 관계를 중요시하며 친구관계만 만족스러울수록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학생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주므로[30], 대학생활 중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아리 및 대학활동을 권장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내외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임을 확인하였으며, 인간관계능력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며[31],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32]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아분화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감정, 지적 체계로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면 정서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 없이 사회적응력이 높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27,33], 미래의 진로 결정에도 신념을 갖고 행동하게 되어 직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34],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상담, 치료, 관리 및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고와 감정의 균형과 자아를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며[35], 유학생들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높은 자아분화 수준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보다 적응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므로[36], 특히 대상자의 상태변화, 스트레스 상황에 빠른 판단력과 올바른 행동 취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보통 수준의 자아분화 수준을 보여[8,26] 대학시기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수준을 확인하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자아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면서도 대상자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이며[26], 졸업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신규간호사들도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이직으로까지 이어져[37],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한 결과, 경력간호사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등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변화가 없었으나 신규간호사들의 프로그램 후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34], 신규간호사들은 임상적응 시 선배나 상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도움이 되고 이직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하여[38], 신규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적응 프로그램보다는 선배 및 상사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들도 대학시기부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대인관계 능력은 개인 성격, 대인관계,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학부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년의 학생보다 학교 적응이 필요한 1학년 시기부터 대인관계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인관계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적응 향상까지 유도하여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도 적응을 하여 궁극적으로 이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2개 간호대학생 185명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상관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30점,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73점, 자아분화 수준은 5점 만점에 3.07점이었다. 간호학과를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지원한 학생에 비해, 전공에 대해서도 만족한 경우와 친구 수가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는 대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내외의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대상자 확대를 통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인관계능력과 자아분화가 대학생활적응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향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신규간호사들의 임상현장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K. Kim, M. J. Kim, "A Review of Research on Hospital Nurses'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4, pp.538-550, 2011.
DOI: <https://dx.doi.org/10.11111/jkana.2011.17.4.538>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urs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Measures. [Interne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ed 2018 Mar 2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1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1&CON T_SEQ=344262 (accessed Jun. 10, 2018)
- [3]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Hospital Nurses Staffing State Survey [Internet]. Seoul: Korean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6 [cited 2016 Feb 11]. Available from: <http://www.khna.or.kr/web/information/resource.php>.
- [4]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urvey of Nurses Employment [Internet]. Seoul: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cited 2016 Sep 15] Available from: <http://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158628&refMenuId=MENU00085&menuId=MENU01621&maxIndex>
- [5]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182-189, 2015.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 [6] J. S. Ha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459-4466, 2015.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7.4459>
- [7] E. K. Moon,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Burnout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yungsangnamdo, 2012.
- [8] M. R. Lee, M. H. Na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6, pp.509-517, 2014.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4.12.6.509>
- [9] K. H. Lee, J. Y. Park,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s of Social Service Ag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4, pp.60-76, 2018.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8.18.04.060>
- [10] Bowen, M.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82.
- [11] K. H. Lee, J. Y. Park,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Service Maladjustment Behaviors of Social Service Ag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4, pp.60-76, 2018.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8.18.04.060>
- [12] J. U. Kim, M. H.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2, pp.506-516, 2014.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02.506>
- [13] B. Park, S. Y. Kim, “Patterns and Influential Factors of Inter-Regional Migration of New and Experienced Nurses in 2011~2015”,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7, No.5, pp.76-688, 2017.
DOI: <https://dx.doi.org/10.4040/jkan.2017.47.5.676>
- [14] K. W. Lee, I. O. Moon, S. 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4, No.2, pp.15-27, 2013.
- [15]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178-2186, 2013.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6] Y. S. Choi,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423-432, 2013.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3.19.3.423>
- [17] Y. H. Kim,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948-8956, 2015.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12.8948>
- [18]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 A flexible s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Available from : <http://www.coe.fsu.edu/content/download/51987/428157/file/Faul2007.pdf> (accessed May, 10, 2016)
- [19] B. G. Gurney,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7.
- [20]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19, No.2, pp.195-204, 1980.
- [21] S. B. J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1989.
- [22]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69-92, 2009.
DOI: <https://dx.doi.org/10.17927/tkjems.2009.21.2.69>
- [23] H. S. Jeong,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2635-2647, 2012.
- [24] S. Y. Chung, G. Y. Kang, “MBTI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1, pp.289-303, 2018.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18.18.11.289>
- [25] N. R. Han, D. G. Lee, “Validation of 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1, pp.137-156, 2010.
- [26] M. J. Jo,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82-190, 2016.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6.22.2.182>
- [27] S. M. Yoon,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Suweon Kyeonggido, 2010.
- [28] J. S. Ha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459-4466, 2015.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7.4459>
- [29]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312-322, 2012.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30] J. S. Park, H. J. Ahn, T. Y. Jung, “Life-Stress Fac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Its Influence on Their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Parent-Child Relations, and Peer Relation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1, No.1, pp.51-60, 2013.
- [31] S. J. Lee, *The Relationship of Self-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nam, Nonsan, 2013.
- [32] J. E. Yi, H. W. Kwak,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527-537, 2016.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6.14.11.527>
- [33] M. H. Lee, J. U. Kim,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3 No.1 pp.29-53, 2015.
- [34] M. J. Koo, K. N.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spital Communication (Hospital Adaptation) Program for New Graduate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8, No.4, pp.1-12, 2014.
DOI: <https://dx.doi.org/10.12811/kshsm.2014.8.4.001>
- [35] Y. J. Moon, M. S. Lee, S. Y. Ahn, “Mediating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6, No.2, pp.109-132, 2016.
DOI: <https://dx.doi.org/10.20497/jwce.2017.6.2.109>
- [36] J. W. Kim, M. H.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Korea content Association*, Vol.14, No.2, pp.506-516, 2014.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02.506>

- [37] S. Y. Lee, E. J. Oh, K. M, Sung, “The Experiences of Turnover Intention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9, No.2, pp.168-176, 2013.

DOI: <https://dx.doi.org/10.14370/jewnr.2013.19.2.168>

- [38] J, Y. Jeong, C. G. Kim, “Impa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Early Stage of their Careers: Focusing on Job Stress”, *Journal of the Korea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7, No.1, pp.36-47, 2018.

DOI: <https://dx.doi.org/10.5807/kjohn.2018.27.1.36>

임 미 혜(Mi-Hye Lim)

[정회원]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5년 1월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2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아동간호